

네팔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우리나라와의 관계.....	12
VI . 종합의견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네 팔

I. 일반개황

면적	147천 Km ²	G D P	79억 달러(2007년)
인구	26.5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299달러(2007년)
정치체제	공화제	통화단위	Napalese Rupee(NR)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66.4(2007년)

- 인도 북부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서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임.
- 동국은 전통적인 농업국으로 가내생산을 통해 주로 식물, 의류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GDP의 약 33%를 차지하는 농업 생산량에 따라 경제성장이 좌우됨. 사회간접자본 미비, 기술 및 자본 부족 등 전반적인 경제구조는 취약한 편임.
- 2006년 공산 반군과 정부간 평화협정 체결 후 2008년 5월 왕정이 폐지되며 총선,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어 정국 안정을 전망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4.7	3.1	3.7	3.2	4.7
재정수지 / GDP	-0.9	-0.8	-1.6	-2.0	-3.0
소비자물가상승률	2.9	6.9	7.6	6.1	7.0

자료 : IFS, EIU

□ 농업 부문 성장에 힘입어 2007년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전체 GDP의 32%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07/08년 경제성장률이 7년만의 최고치인 4.7%를 기록하였음. 2006/07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 부문 성장률이 0.9%에 그쳤으나 2007/08년에는 농업에 유리한 강우, 일조량 등의 기후조건에 힘입어 전년 대비 5.7% 성장하였음. 이로 인해 주요 농작물인 쌀 수확량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4.3백만 톤을 기록함.
- 잦은 파업, 노동 분쟁, 전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도 성장률 2.6%보다 낮아진 0.2%를 기록하였으나, GDP의 13.6%를 차지하는 도·소매업이 6.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관광산업, 숙박업, 통신업 등의 양호한 성과의 힘입어 서비스업은 성장세를 이어감.
- 2008/09년에는 공화제 출범 이후 새로운 정부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정치 안정과 함께 경제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를 바탕으로 2008년 9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2008/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였음.

□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

- 동국은 세원 부족과 함께 석유 제품에 대한 과도한 정부 보조금 지급, 정치 불안에 의한 해외원조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임.
- * 네팔 석유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네팔석유공사(Nepal Oil Corporation: NOC)는 석유 전량을 인도석유공사(Indian Oil Corporation: IOC)에서 공급받고 있음. NOC가 석유를 수입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신, 정부는 수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 유가 급등으로 NOC의 적자가 늘자 2008년 6월 정부는 석유 가격을 종전 대비 27% 인상했지만, 여전히 시장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임.
- 2007년 7월 중순부터 2008년 6월 중순 기간 중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U\$1억 3,500만(NR93억)을 기록함으로써 2007/08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소득세 관련 제도 개혁을 통해 세수 기반은 넓어졌으나, 소득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1%에 불과해 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 고유가,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 2007년에는 석유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 삭감,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의 물가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인도 루피화가 대미 달러 환율 강세를 나타내면서 인도 루피화에 연동된 네팔 루피화의 평가 절상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낮아진 6.1%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 및 정부의 석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높아진 7.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인도 루피화의 대미 달러 약세로 인해 네팔 루피화도 평가 절하되어 기존에 누렸던 수입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도 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 * 2008년 1월 5.8%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개월 연속 상승해 같은 해 8월에는 13.1%를 기록하였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및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구조

- 농림수산업은 2007/08 회계연도 기준으로 네팔 전체 GDP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1970년대의 약 70%와 비교해 볼 때 상당폭 감소한 수준이나, 아직도 전체 노동력의 81%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등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그치고 있는데, 제조업의 성장 장애요인으로는 정치적 불안 요인 외에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미성숙한 국내소비시장 및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의한 해상운송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

- 동국은 정부의 개발목적 예산의 70%를 포함해 매년 총 예산의 약 20%를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대외원조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치안상황,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개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주요 원조국/기구인 일본,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및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속적으로 네팔 정부에 대외원조 기금 사용의 투명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요구하고 있음.

□ 교역의 대부분을 인도에 의존

- 인도가 2007년 기준 네팔 수출의 68.8% 및 수입의 61.4%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교역의 대부분을 인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네팔에 대한 인도의 정책이 급변할 경우 네팔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 큼.

- 특히 경제에 필수적인 석유를 인도석유공사(IOC)로부터 유일하게 공급받고 있는데 2007년 5월 네팔석유공사(NOC)가 경영난으로 석유대금 9,000만 달러를 미납한 이후 인도석유공사가 석유 공급을 40% 축소시킴으로써 네팔 경제가 거의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이후 양국간 협정으로 석유 공급이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네팔석유공사의 적자가 증가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인한 석유 부족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2008년 2월 인도가 자국 내 식료품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네팔에 곡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같은 해 3월 밀 가격은 39%, 쌀 가격은 35% 급등하였음.
- 또한 내륙국가인 네팔은 인도와 운송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 국경 21개 지역(이중 15개 지역은 국제거래 거점)을 무역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인도와의 협력관계가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세계적인 관광자원 보유

- 네팔은 해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8좌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음.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이 서비스분야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총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정치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2005년 2월 가넨드라 국왕의 정부 해산 조치 이후 각국 대사관들의 자국민에 대한 네팔 여행 자제 요청으로 방문객 수가 감소되는 등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2006년 11월 공산반군과 정부와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총선, 대선 등을 거쳐 새로운 정부 구성의 기틀이 마련되는 등 정국이 안정되면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
- 2007년에는 이러한 정치 안정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37.2% 증가한 약 53만명의 관광객이 네팔을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2억 3,000만달러의 관광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전년 대비 41.7% 증가한 수치임.

□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발효

- 2005년 12월 1일, 서남아 7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SAFTA가 발효되었음. 이로 인해 역내 최빈국중의 하나인 네팔은 2015년까지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해야 하지만 최빈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장기적인 구조개선 효과와 역내 교역 증대가 전망됨.
- 인도는 2008년 1월부터 서남아시아지역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가맹국 중 방글라데시·부탄·네팔·몰디브 등 저개발국가에 대한 개방제외품목(Negative List)을 기존의 744개에서 500개로 줄이는 방침을 시행하였음. 개방제외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품목은 저개발국에서 인도로 수출시 기본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대 인도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다. 정책 성과

□ 국영기업 민영화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

- 네팔 정부는 경제개혁과 부족한 정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92년 이후 지속적인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음.
-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네팔농업개발은행(Nepal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NADB)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후 전체 지분의 65%는 정부, 5%는 60만 명에 이르는 농민들에게 각각 배정하고 나머지 30%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정치 불안으로 민영화 과정이 중단되었음.
- 2007년 6월 22일에는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네팔 최대 국영통신회사인 Nepal Telecom사의 지분 15%(2,250만 달러 규모)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등 개혁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3. 대외 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경 상 수 지	-45	1	-10	-130
경 상 수 지 / GDP	-0.7	0.0	-0.2	-1.7
상 품 수 지	-1,135	-1,373	-1,592	-2,008
수 출	773	903	849	925
수 입	1,908	2,276	2,441	2,933
외 환 보 유 액	1,453	1,490	1,639	2,000
총 외 채 잔 액	3,358	3,197	3,409	3,570
총 외 채 잔 액 / GDP	43.2	37.3	36.2	29.0
D . S . R .	5.6	4.7	5.1	4.0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기록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동국은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GDP의 17.3%를 차지하였음. 하지만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관광수입 증대, 세계 25개국에 진출해 있는 자국 근로자들의 송금, 원조국들의 무상 원조 등으로 소폭의 적자를 유지해 오고 있음.
- 2005년 2월, 가넨드라 국왕의 의회 해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원조 유입은 감소하였지만 국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네팔인들이 증가하면서 해외 근로자의 국내 송금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7월~2008년 5월 기간 중 상품수지는 국제 유가 상승 및 주요 수출국인 대 인도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한 17억 달러의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힘입어 2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안정적

- 네팔의 외환보유액은 해외근로자들의 국내 송금 및 해외 원조 등에 힘입어 2008년 2월 기준 2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8개월분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내전 종식 후 공산 반군과 정부간 평화협정 체결

- 1996년 군주제 타도와 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공산 반군(Maoist)이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네팔은 10년 동안 내전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1만 3천여명이 목숨을 잃었음.
- 2006년 11월, 공산 반군의 무장 해제 및 정치 참여를 전제로 공산반군과 임시정부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내전이 종식되었고,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함.
- 하지만 이후 공산 반군이 가넨드라 국왕의 축출, 비례대표제 총선방식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2007년 4월, 11월로 예정되었던 총선이 각각 연기되었음.

□ 왕정 폐지 후 공화제로 전환

- 2008년 4월, 그간 연기되었던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 실시된 결과, 네팔공산당(Communist Party of Nepal, Maoist)이 전체 240개 지역구 의석의 절반인 120석 및 9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면서 601석의 제헌의회 의석 중 217석을 확보해 네팔 제1당이 되었음.
- * 네팔공산당의 뒤를 이어 네팔국민의회당(Nepali Congress)은 107석, 마르크스-레닌주의 연대 네팔공산당(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ist)은 102석을 확보하였음.

- 총선 다음달 소집된 네팔 제헌의회에서 출석의원 564명 중 560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왕정 폐지가 결의됨으로써 네팔 왕정이 막을 내리고 공화제로 전환되었음.

□ 총선,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의 기틀이 마련됨

- 왕정 폐지 후 주요 정당들은 행정수반인 총리와 상징적 의미의 대통령을 두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치러진 대선에서 제2당인 네팔국민의회당의 바란 야다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 대선 이후 8월 의원 투표에서 네팔공산당의 당수인 프라찬다가 초대 총리로 선출됨으로써 올해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는 공화제 출범 후 초대 대통령과 총리를 확정지으며 새로운 정부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음.

□ 정국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룸

- 공화제 출범 이후 총선과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의 기틀이 완성되었지만 새로운 헌법의 제정,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의 경제체제 형태의 결정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 또한 남부 마데시족 등 소수 민족들의 독립운동, 내전 종식 후 남게 된 반군 대원 문제 등도 새 정부 출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내전의 종식으로 인해 전보다 정치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국 안정은 불투명한 상황임. 지난 8일 프라찬다 총리가 토지개혁 및 공산 반군의 정부군 통합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등 정국 불안의 가능성은 상존함.

2. 사회동향

□ 티베트인들의 독립시위 지속

- 네팔은 티베트지역과 에베레스트산을 두고 맞닿아 있어 망명 티베트인들에 의한 반중국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음. 네팔에서 티베트인들의 독립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8년 8월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과 동시에 카트만두에서 티베트인들이 중국 영사관 진입을 시도하며 현지 경찰과 충돌해 1천 300여명이 체포되었음. 이후 같은 달 14일에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1천명 이상의 티베트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500여명이 체포되었음.

- 네팔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티베트인들의 시위 강경 진압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 Watch는 2008년 3월, 네팔 정부가 시위를 벌이는 티베트인들에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이를 중지하도록 촉구하였음.

3. 국제관계

□ 네팔공산당 집권 이후 인도, 중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

- 전통적으로 인도는 정치, 경제적으로 네팔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음. 그러나 자국내의 공산 세력과 네팔 공산 반군과의 연계를 우려해온 인도에게 공산 반군 배경의 네팔공산당의 집권은 인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프라찬다 총리가 인도와의 양자 조약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간 불평등조약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1950년의 평화우호조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인도가 네팔 정부와 협력할 뜻이 있음을 밝히며 해당 조약의 재검토 제안에 응하였음. 양국은 네팔의 정치 불안 과정을 겪으며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협력 관계로 관계 개선에 노력 중임.
- 한편 그동안 네팔과 인도와의 관계를 견제하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중국은 네팔공산당의 집권으로 인해 네팔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프라찬다 총리가 선출된 이후 전통적으로 네팔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방문했던 인도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기도 하였음.
- 프라찬다 총리는 중국과 인도와는 같은 거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등거리 외

교 입장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음. 남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인도 사이에서 네팔이 양자 모두에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입장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 상환 태도

□ 원조지원 감소에도 단기적 외환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정부재정 부족분을 해외원조자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외채부담이 꾸준히 증대되었음. 1980년대 초반의 경우 GNI 대비 총외채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56.2%로 최근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이 과중한 편임.
- 대외채무와 관련하여 리스케줄링 사례는 없으며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 지원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근로자의 안정적인 송금 유입으로 단기적인 외환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현황

- 그동안 정치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S&P, Moody's, Fitch사 등 주요 국제신용도 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Euromoney 및 I.I. 만이 평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o OECD : 7(2005. 4) → 7(2006. 4) → 7(2007. 3) → 7(2008. 4)
- o Euromoney : 144/185(2007. 3) → 143/184(2007. 9) → 143/185(2008. 3)
- o I. I. : 143/174(2007. 9) → 144/173(2008. 3) → 149/177(2008. 9)

3. 주요 ECA의 인수태도

- 미국(EXIM) : 공공부문에 대한 부보위험 제약조건만 가능
- 네덜란드(Atradius) :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영국(ECGD) : 인수 불가
- 독일(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VI.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4년 5월 15일(북한과는 1974년 5월 15일)

□ 주요협정: 영사협정(1969), 무역협정(1971), 이중과세방지협약(2001),
항공협정(2004), 문화협정(2005)

□ 교역규모

(단위: 천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1~10월	주요 품목
수출	13,756	12,390	18,727	19,720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의류 등
수입	778	936	607	901	기타섬유제품, 기호식품 등

□ 대 네팔 투자는 미미한 편이나 최근 증가 추세

- 2008년 9월말 기준 우리기업의 대 네팔 총투자는 11건, 11백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2007년 한 해에만 약 4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최근 들어 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임.

VII. 종합 의견

- 제조업분야가 취약해 농업과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수출의 대부분을 대인도 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원조에 의존도가 높아 경제 구조는 취약한 편임.

- 2006년 11월 공산 반군과 정부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2008년 4월, 두 차례 연기되었던 총선이 치러지면서 239년간 이어진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제가 출범하였음.

- 공화제 출범 후 네팔공산당의 프라찬다가 총리로 선출되면서 네팔공산당이 집권하게 되었고,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중이나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정국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임.